우암학원 창학 71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FELICE 승원 팰리체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www.seungwongroup.com 홈페이지 참조]
승원건설그룹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844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8월 25일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광주·전남 간병비 부담 큰 이유 있었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전국 최저

의료기관 참여율 25%·21%…대전 64%·대구 61%와 대조
하루 간병비 1만여원→15만원…정부 지원 지역 편차 줄여야

5개월 전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진 80대 노모를 병원에 입원시킨 김희동(광주시 북구·50)씨는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 중이다. 고용 간병인에게 하루 일당 11만원에다 휴가비와 기타 사례 비용 등을 주다보니 매월 350만원으로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월수입이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간병인 대신 직접 간병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김씨 사례처럼 간병이 지역민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암, 치매, 조현병 등으로 장기 투병하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탓에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부담이 가정 파탄을 불러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간병으로 인한 가족과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 시행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기관 참여율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기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광역 시단위·도 단위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또는 개인 간병인이 없더라도 입원환자가 간호인력을 통해 24시간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지역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가족 간병을 할 경우 하루 간병비로 1만 5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의료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는 그마저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개인적으로 사설 간병인을 쓰게 되면 일당과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하루 최소 12만원~15만원의 고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총 1505곳 중 실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594개소(39.5%)에 불과했다.

이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평균 참여율은 40%에 가깝지만, 광주는 참여대상 87개 의료기관 중 22개소(25%)만이 참여해 참여율 기준 전국 7대 대도시 중 최하위였다. 대도시 가운데 참여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64%였으며, 대구 61%, 인천 52%, 부산 47%, 울산 37%, 세종 33%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도 참여대상 90개 의료기관 가운데 19개소(21%)만이 참여해 인구가 가장 적은 제주도를 제외하곤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도단위 가운데 참여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50%에 달했으며 경기 40%, 충북 39%, 강원·충남 28%, 경남 27%, 전북 24% 등의 순이었다. 도 단위지역은 농·산·어촌 지역 등이 많고 노인인구도 상대적으로 많지만, 정작 이용만족도가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따르면 간호·간병 병동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의료기관들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이 낮으면서 상대적으로 지역민의 간병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시설 지원과 통합서비스에 따른 인원 증가에 대비한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입원 병상의 절반 이상이나 그 이상 등 통합서비스 병상 비율이 높은 곳은 지원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병원 김상훈 원장은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려면 병실을 재배치해야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병원 총 병상 가운데 50% 이상을 통합서비스 병상으로 바꾸는 바람에 병원의 경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통합서비스 참여를 늘리려면 단순 참여가 아닌 병상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간병으로 인한 가족과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된 지 7년이 됐지만, 이 통합서비스에 참가하는 광주·전남지역 의료기관들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어 지역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오후 광주의 한 병원에서 장기 입원환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인권도시 광주 다크투어리즘에 미래 있다 ▶6면
미항 여수 줄지어 앉은 섬들의 합창 ▶18면
7연패 기아, 가을야구 멀어지나 ▶22면

한경, 광주 인쇄 시대 개막!
광주에서도 서울과 똑같은
생생한 한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77-5454
한국경제 압도적 1등 한국경제신문
MOBILE 한경

국힘 새 원내대표 주호영 61표 얻어…이용호에 신승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사진) 의원이 19일 선출됐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약 한 달 만이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투표한 의원 106명 중 61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당이 안정돼야 한다"며 "그 다음에 외연 확장을 통해 지지율을 올려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약자와의 동행, 호남 동행, 청년 정치참여, 빈부격차 해소, 이런 것을 통해 국민에게서 신뢰를 회복해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자신을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했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정리되는 걸 봐 가면서 당원·의원들과 상의해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 비대위를 겨냥해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심리,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경찰 수사, 당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징계 등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이 전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하나가 되면 제일 좋겠는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야당을 향해선 "무슨 문제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그런 점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와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170석의 의석을 갖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대선에서 드러났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좀 더 차분하고, 냉정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당헌상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지만, 주 원내대표는 중도 사퇴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원내대표와 양자 대결을 벌인 재선의 이용호 의원은 42명의 지지를 얻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weeks
고함량 고강도 레티놀이 눈가 및 팔자 주름 등을 단 2주 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 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9.16~10.17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